

2025년 11월~12월 사역 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폴란드 루블린 땅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영혼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 부부의 사역 현장을 나눕니다. 지난 두 달간 이곳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다가올 새해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루블린 센터 사역: “만남과 회복의 공간”

1) 청년 홈그룹 : 말씀 안에서의 정착 : 지난 10월, 루블린 시내 중심가에 마련된 선교 센터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청년 홈그룹 모임을 통해 새로 등록한 지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며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든든히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2) 한글 교실(복음의 접촉점) : 매주 토요일 열리는 한글 교실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4명의 학생으로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새해에는 더 많은 이들이 이 교실을 통해 교회와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3) 독일로 떠난 나타샤 가족 소식 : 독일로 이주한 나타샤 자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들도 변호사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행복한 성탄 파티 사진과 함께 현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벅찬 감사를 드렸습니다.

2. 루블린 교회 사역: “예배와 섬김의 기쁨”

1) 감격의 침례식 (11월 9일) : 성령의 감동 속에 5명의 지체가 침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고백했습니다. 침례 교육을 받았으나 정교회 배경을 가진 가족들의 반대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록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2) 성탄 및 연말 모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

홈그룹 파티 :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벨라루스 여학생들을 위해 2개의 홈그룹 23명이 센터에 모였습니다. 영화 ‘The Chosen: The Shepherd’를 함께 관람하며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탄 예배 : 12월 20일에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나누며 기쁨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온 성도가 준비한 칸타타와 드라마,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선물 전달 : 교회는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어린이들에게 130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젊은 부부(루블린 하나님의 빛 교회 출신)를 통해 전달된 이 선물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종전의 기쁜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송구영신 예배** : 가족과 연말을 보내는 우크라이나의 문화가 있지만, 올해는 12월 31일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기름 부으심이 온 성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 연합 사역: “하나 됨을 위한 준비” (2026년 청년 캠프)

2026년 8월 24일~28일,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연합하여 청년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3일, 5개 교회 목회자와 리더 20여 명이 루블린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약 15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캠프는 우크라이나 교회들의 첫 자발적 연합 사역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준비 과정의 과제들이 있지만, 이 캠프를 통해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거듭나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 2월 사역 계획

1.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 **아버지 학교 (1월 시작)** : 연말의 분주함을 피해 1월부터 ‘아버지 학교’를 시작합니다. 전쟁과 피난 생활로 위축된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영어 성경 공부** : 센터에서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필요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되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기기를 소망합니다.

3) **전도 훈련** : 바르샤바 한인교회 선교 훈련 수료(19명)에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도 훈련 요청이 들어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양육과 말씀 사역

1) **홈그룹 리더 훈련** : 소수의 리더를 집중 양육하여, 그들이 다시 각 홈그룹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영적 재생산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2) **교회 세움** : 새해에도 주일 말씀 사역, 목요 기도 운동, 그리고 상담 사역을 통해 교회의 내실을 다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기도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동역자님의 기도는 선교지의 생명줄입니다. 다음 제목들을 위해 손 모아 주십시오.

1.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종전과 평화의 날을 위하여:

장기화된 전쟁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하루속히 포성이 멈추고 참된 평화(Shalom)가 찾아와 무너진 터전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주님의 위로로 치유되고, 전쟁의 폐허가 다시금 예배와 회복의 땅으로 거듭나기게 하소서.

2. 양육 프로그램 및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새해 시작되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난민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홈그룹 사역과 리더 훈련을 통해 공동체의 신실한 일꾼들이 양육되고 훈련되어, 흩어지는 교회(Diaspora Church)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교회 연합 청년 캠프를 위하여 (2026년 8월 24일~28일):

폴란드에 정착한 5개 우크라이나인 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하는 청년 캠프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 과정의 재정과 인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4. 선교사 가정의 및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며 신앙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믿음의 대를 잇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선교사 부부가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폴란드 거주증 발급(1월 말~2월 초 예상)이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저희 부부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충만과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마치는 글 : 감사의 인사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는 저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대광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이곳 루블린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기도의 무릎과 후원의 손길로 이 거룩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빛진 자 된, 루블린에서 이경옥/정선경 선교사 올림